

국가공간정보 시스템 관리체계 개편과 방향

장성욱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사무관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 배경

공간정보는 ‘공간상에 존재하는 객체에 대한 위치와 관련 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간정보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 재해 및 재난 관리, 자원 발굴, 기업 마케팅, 문화재 관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그 활용 가치가 높아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최신성·일관성·정확성이 확보된 정보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또한 최근 정부는 ‘정부 3.0’을 통해 국민과 정부, 부처와 부처, 민과 관 사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가공간정보는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콘텐츠이다. 이에 정부가 주도할 영역과 민간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부처 간 협업을 위한 공간정보와 행정정보의 융합 등 기반 강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창조경제 활성화와 정부 3.0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공간정보를 구축·관리하고 있는 정부 산하기관 간의 공유와 협력 아래 내·외부 공간데이터를 연계하여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공간정보 시스템 개편 방안

기존 관리체계의 문제점

공간정보가 보다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수요자가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 국가공간정보 체계는 기관별 또는 시스템별로 구축하여 사용함에 따라 제공되는 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다시 기 구

국가공간정보 시스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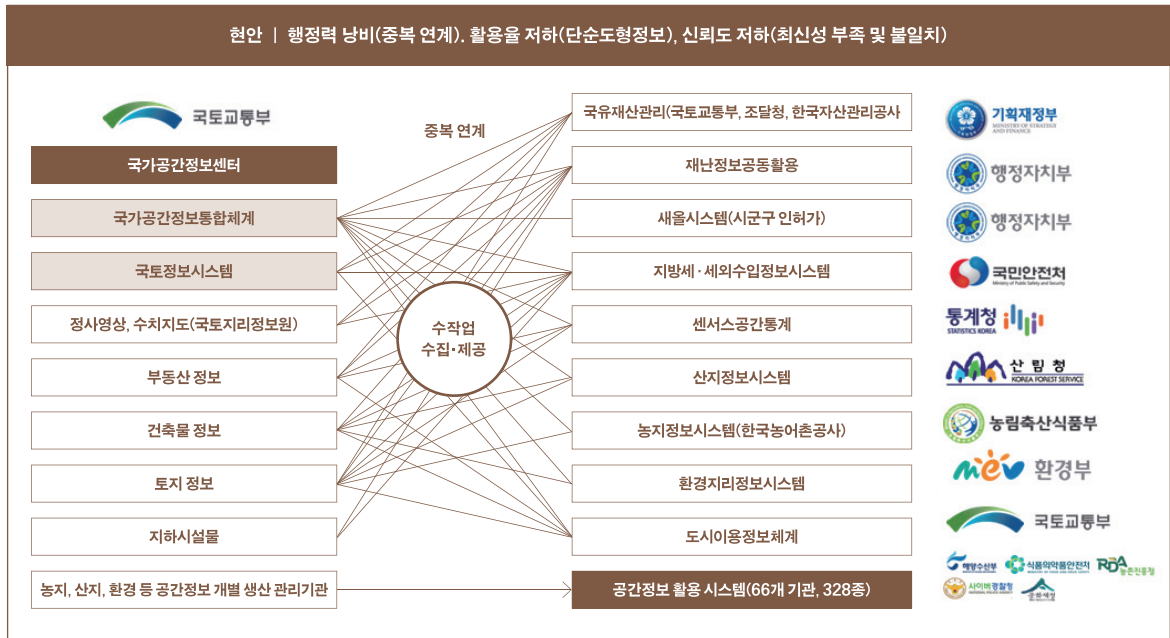


축된 고품질 공간정보의 연계활용을 막고 데이터 불일치와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다. 결국 이는 공간정보의 소극적 공개·개방으로 이어져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4년 선행연구와 2015년 실태조사*를 통해 공간정보 구축 체계와 구축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민간·공공기관·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간 연계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별 시스템으로부터 공간정보와 행정정보가 중복 연계되어 서비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계 방식에 대해 ‘온라인 연계’가 84.4%, 연계 주기에 대해서는 ‘실시간 연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30%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속지적도, 행정경계도와 같이 실제 행정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간정보에 대해서 연계 수요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관련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15년 7월에서 8월까지 한 달간 34개 기관, 89종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관리체계 개선 방안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정보와 공간정보의 융합 ▲공개가능 정보와 비공개 정보의 분류 ▲행정내부와 외부 포털 구분 ▲시점별 데이터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계 채널이 일원화된 통합 데이터의 설계·구축’을 목표로 정책과제를 설정하였다. 또한 국가공간정보 통합관리 체계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간정보 연계 허브와 활용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공간정보 포털에서는 민간을 위한 개방·유통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다.

국가공간정보의 중복 구축 방지와 일관성이 확보된 최신정보 구축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4가지 협업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공간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한 대내외적 공간정보 품질 거버넌스 역량 강화 ▲둘째, 공간정보 품질 확보를 위한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품질관

리 표준 등을 통한 관리 기준 정비 ▲셋째, 공간정보의 ‘생산·구축, 통합·공유, 응용·융복합, 공개·개방’ 등 가치사슬 전체로 정보품질 관리 확대 및 국토공간정보의 통합관리 체계로 정비 ▲넷째, 공간정보와 행정, 민간 정보의 융합 활용을 위한 기반체계 정비 등으로 국가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그것이다.

국가공간정보 시스템은 고품질 공간정보의 생산·활용을 통해 정부행정업무 및 대국민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간정보의 ‘생산·구축, 통합·공유, 응용·융복합, 공개·개방’ 체계로 재정립되어야 하는 상황이나, 위의 모든 프로세스를 중앙정부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영역과 민간 영역에 대한 역할 정립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생산·구축, 통합·공유, 응용·융복합’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행정업무에 활용하고, 민간에서는 정제된 중앙정부의 데이터를

100



연스레 정화

부산업 발전

[詩 의 化 代]

700

연스레 정화

